

귀농귀촌 3배 급증 불구 농가인구 감소

도내 인구 농촌 유입이 타지 유입보다 많기 때문... 도시민 유치 등 대책 시급

지난해 전북도 귀농귀촌세대가 급격히 증가해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내부 인구의 이동이 크고 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은 미미한 실정여서 농가 인구 증가를 통한 농촌 활력증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5년 도내 귀농귀촌 세대는 17,347세대(24,094명)로 전년(4,285세대) 대비 30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까지 귀농귀촌 세대 증가율이 100%를 넘지 못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시·군별로는 완주군이 4,595세대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익산시(1,716세대), 고창군(1,371세대), 김제시(1,288세대) 등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도내 농가는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또한 여전히 농가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도내 인력이 농촌으로 유입되는 현상에 비해 타지역인이 귀농귀촌을 위해 전북을 찾는 인구유입 현상은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즉 도내 내부 인력의 순환만으로는 농촌활력 증진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실제 도내 65세 농가의 비율은 1990년 11.3%였지만 2013년엔 37.7%로 26.4% 증가해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으로 지난해 사상 최고인 17,347세대가 도내로 이주하는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북지역의 귀농귀촌세대

(도내 순환인구)가 9,534세대로 전체 이주 세대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유입된 세대는 총 4,604세대로 전체의 26% 정도에 해당한다.

문제는 농가 인구의 감소에 있다. 전북도가 조사한 농어가 인구추이에 따르면 2005년 33만여명의 농어민은 2010년 28만여명으로 연평균 2.5%씩 감소했고 2014년에는 26만여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0%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전국의 2005년 농어가 인구가 370여만명에서 2014년에 275만여명에 이르는 전국적인 농어가 인구 감소에 따른 효과도 뒤따른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 6기 도시민 2만 세대를 도내 농촌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맞춤형 교육, 단

계적 주거 공간 확대, 안정적 소득 창출, 지역 내 갈등해소 등을 주요 골자로 4대 핵심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전라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 전주센터 및 서울사무소 운영 ▲수도권귀농학교 운영 ▲전라북도귀농귀촌박람회 개최 ▲귀농귀촌 홍보 및 교육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등이 총 14개 사업에 118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라북도귀농귀촌연합회 등 민간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가 귀농귀촌의 최적지임을 부각시키겠다"면서 "이를 통해 도시민 농촌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유지와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정부 미세먼지 관리 '요란한 빈수레'

노후 경유차 폐차... 예산 논의 없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처리 방안도 빠져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달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일 기재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 이행 계획'을 내놴다. 환경부가 대통령 몇 마디에 신속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공언했던 미세먼지 관리 세부 이행 계획 발표 시한(6월 말)을 지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두리둥실한 '세부이행 계획'을 내놴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해왔다. 하지만 기존 경유차가 도로 운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규제하는 방안은 여전히 빠져있다. 2017년 9월부터 인증을 받는 경유차에 한해 강화된 배기가스(질소산화물 등) 인증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시커먼 매연(미세먼지)을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를 6개월 간 70% 면제해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 방안이 미흡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해 개별 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을 주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개소세 감면 혜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이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개소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신차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 뿐 아니라 경유차를 포함시킨 것도 중장기적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날 환경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고 밝혔지만 새롭게 세워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이 훨씬 더 많아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있다"며 "노후 화력 발전소 10기를 다 합쳐야 발전시설용량이 3345MW에 불과한데 현재 계획 중인 발전시설용량 8420MW에 달하는 신규 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귀농귀촌박람회' 서울 aT센터에서 개최

6가지 테마 전시관 운영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 전시실에서 '귀농귀촌! 이제는 전북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6 귀농귀촌 박람회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하여 시장·군수들이 농촌마을 체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이하는 '전북 귀농귀촌 박람회'가 1일부터 3일까지 농수산유통센터(aT) 종합전시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가 주최해 '귀농귀촌! 이제 전북이다'라는 주제로 도내 지자체, 교육기관, 농촌체험·휴양마을, 업체 등 75개 기관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도는 '지자체 홍보·상담관'을 비롯해 '귀농귀촌 교육관', '농촌체험·휴양마을관', '로컬푸드관', '전라북도 종합홍보관' 등 6가지 테마 전시관을 운영했다.

지자체 홍보·상담관에서는 각 자치단체별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고, 귀농귀촌 교육관에서는 각 기관별로 진행하고 있는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유관기관 협력관에서는 각 기관별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전라북도 종합홍보관에서는 전북 농촌관광, 탄소산업, 새만금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여 수도권의 도시민에게 전북을 알렸다.

도 관계자는 "전북 귀농귀촌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과 상담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도시민과 귀농귀촌인이 농어촌을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도 6차산업 인증업체 25곳 지정

올해 2/4분기 심사서... 총 144개소로 전국1위

전북도내 25개소의 경영체가 6차산업 인증 사업자로 추가 지정돼 도는 6차산업 인증된 우수 경영체가 144개소로 전국 1위를 유지했다.

이에 도는 도내 6차산업 우수경영체를 6차산업 확산의 주체로 활용해 6차산업화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1일 도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6차산업 인증심사에 도내 업체 35개소가 신청해 25개소(72%)가 인증받았다.

이로써 도는 전국 960개의 6차산업 인증경영체 중 144개의 경영체를 보유해 전국 1위를 유지했고 그 뒤를 전남이 142개소로 뒤따른다.

인증사업자는 농식품부 장관명의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또한 우수제품 유통평의회 개최, 우수사례 경진 대회, 6차산업 온라인사이트(http://www.6차산업.com)에 인증정보를 등록해 6차산업 인증 사업의 제품은 인증표시를 부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6차 산업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 사업자로 지정해 6차 산업 확산의 주체로 활용하겠다"면서 "인증사업자 중 경영실적과 사업목표 달성도 등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포상하여 6차산업화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여름방학 스피치 특강 모집

스피치 · 웅변 · 면접 · 웃음치료 · 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 김양옥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를 함
④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